

수출입은행, OCI 태양광사업 1200만달러 지원

수출입은행이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출입은행은 OCI가 미국 뉴저지에 추진하고 있는 9MW급 태양광발전단지 1단계 건설사업에 1200만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12월20일 발표했다.

OCI는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1월 코너스톤(Conerstone)을 인수한 후 태양광발전단지를 추진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원은 국내기업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2011년 국내 녹색산업 성장에 3조8000여억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에는 5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1/12/20>